

제주대신문

일부 학생대표 “학생회 활동, 언론에 감시 받기 싫다” 발언
“비민주적 행태… 사실상 밀실정치 아니냐” 비판 거세

학생자치기구 중앙운영위원회(위원장 유병선 총학생회장, 이하 중운위)에 대해 일각에서 “학생이 회의 참관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학생자치기구 최고 운영기구인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해 규정한 ‘총학생회 회칙’에 따르면 학생 참관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중앙운영위원회는 △학생회 사업 계획을 수립·심의·의결 △회칙개정안 발의권 △특별기구장 출석요구 및 집의권 △학생총회 소집 요구권 △대의원총회 소집 요구권 △특별기구 설치 요구권, 설치, 해체권 등을 담당하는 기구이다.

일부 학생들은 폐쇄된 학생회의에 대해 “사실상 밀실정치(密室政治) 아니냐”며 “불합리한 학생회칙이며 개정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상대학의 한 학생은 “우리나라 국회도 국민이든 자유롭게 국회 회의를 참관할 수 있는데 학교 대표자회의는

왜 안 되느냐”며 “이래서 학생회 회의가 ‘그들만의 리그’라고 불리는 것이며 이는 불합리한 방침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은 “운영위원회가 최고의결기관이면서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일반 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언론 기자마저 중앙운영위원회 참관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유병선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일부 중앙운영위원회 위원들이 ‘대학 언론이 학생회를 감시하는 것 같아 싫다’며 학생기자 참관을 거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참관이 힘들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회칙에 의해 학생, 언론이 운영위원회 참관이 보장받고 있다. 부산대, 한성대, 세종대 등은 회담하는 경우 일반 학생이나 언론사 기자가 자유롭게 참관하고 있다.

김명지 기자

제주대신문



‘예비 디자이너들의 패션쇼’ … 의류학과 작품전 눈길

제16회 의류학과(학과장 권숙희) 졸업작품전 패션쇼가 지난달 31일 오후 3시와 7시 두 차례에 걸쳐 라마다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29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이번 패션쇼는 ‘The CUBE’를 주제로 개최됐다. 패션쇼는 ‘클래식을 재해석하다(Re : Classic)’, ‘힘을 표현하다(Power)’, ‘기계화 되는 인간(Automaton)’, ‘해체주의(De-constructivism)’, 갈옷, 한복, 웨딩 등 7가지 테마를 가지고 진행됐다.

윤희연 졸업작품준비 위원장은 “주제 ‘CUBE’는 섞여있는 큐브조각을 힘을 모아 완성해 나간다는 의미”라며 “학우들 각자의 독창성과 개성이 서로 하나로 어우러져 최고의 패션쇼가 됐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2014학년도 수시 신입생 798명 모집… 9일 마감

전체 모집 인원의 31%
“입학전형 변화 유의해야”

제주대가 5일부터 9일까지 2014학년도 수시 신입생을 모집한다.

올해 수시 모집인원은 전체 모집인원의 31%인 798명이다. 이중 일반전형으로 540명, 수시 입학사정관전형으로 258명을 선발한다.

수시 일반전형은 △일반학생 270명 △예체능특기자 47명 △농어촌학생 62명 △특성화고졸신사 55명 △특수교육대상자 60명 △특성화고졸재직자 46명이다.

수시 입학사정관전형은 △글로벌 미래교사 62명 △JNU인재 90명 △사회적배려대상자 61명 △기회균형선발 45명이다.

입학사정관 전형 학생부 성적은 100% 교과성적으로 반영되며 교육

대학 초등교육과 지역제한이 폐지됐다.

다.

2014학년도 수시모집은 수시 일반전형과 입학사정관전형 간에 복수지원이 허용된다. 다만 각각의 지원 횟수는 수시 6회 제한에 모두 포함된다.

수시원서는 인터넷으로만 접수한다. 제주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ibs.jejunu.ac.kr) 또는 입시전형

아열대연구소, 한국연구재단서 ‘최우수 등급’

3년간 22억여원 지원

아열대원예산산업연구소(소장 이효연)가 지난달 실시된 2단계 사업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아열대원예산산업연구소는 향후 3년간 22억4800만원을 지원받게 돼 국내 중점연구소 중에서 가장 많은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번 2단계 평가는 2007년 중점연구소로 선정된 제주대를 비롯해 서울대·포항공대 등 8개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한편 연구소는 지난 2007년부터 한국연구재단 이공분야 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취업률 52.8%로 거점국립대 2위

전년보다 5.1% 상승… “내년 취업률 60% 목표”

제주대 올해 취업률이 52.8%를 기록했다.

지난달 29일 대학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대는 지난해 47.7%에 비해 5.1%가 증가했다. 올해 취업률은 총 북대에 이어 전국거점국립대 중 2위이며, 전체 국립대 중에서는 6위이다.

10명 이상 졸업한 학과 중에서는 건축학전공이 87.5%(17명 졸업 14명 취업)로 제일 높은 취업률을 기록했고 이어 가정관리학과가 85.7%(15명 졸업 12명 취업)로 2위에 위치했다. 제일 낮은 취업률을 기록한 학과는 윤리교육과로 9.1%(11명 졸업 1명 취업)를 보였다.

단과대학별로는 의과대학이 100%를 기록했고(의과대학 3명 졸업), 이어 교육대학이 79.3%, 간호대학이 78.6%의 취업률을 보였다.

취업전략본부는 높은 취업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부서별 협조, 취업컨설턴트 제도, LINC사업단 협조, 취업동아리 및 HRA 아카데미 등을 꼽았다. 또한 해외취업률, 영농 취업률도 크게 증가했다. 이와 함께 순수취업률(대학원 진학자 제외)은 전국거점국립대 중 1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대학원 진학률은 5.1%로 전국 국립대 평균인 14.4%에 비해 매우 낮았다. 취업전략본부는 내년 목표표로 진학률 10%를 잡았다.

임재운 취업전략본부장은 “전국 국립대의 취업률이 떨어지는 것에 비해 5.1% 상승한 것은 크게 고무적”이라며 “이번 취업률은 취업전략본부뿐만 아니라 학내 기관, 구성원이 모두 노력해서 얻은 결과”라고 말했다. 임 본부장은 이어 “취업률 60%, 1000명 취업, 여학생 취업률 증가가 내년 목표”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11월 13일

10월 10일부터 20일간 후보자 공모

새로운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제도에 의해 선출될 제9대 총장 임용후보자가 11월 13일에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총장임용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위원장 송석인)에서 이 같은 일정이 확정됐다.

이날 후보자 선정에 앞서, 전날 실시된 단과대학 추천위원 선정투표를 토대로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위원회 위원이 선정된다.

한편 총장임용후보자 공고는 공모위원회에 의해 다음달 10일부터 20일간 이뤄진다.

강경태 기자

박물관 문화교실 참가자 9일부터 모집

문화사업 지원기관에 선정

박물관(관장 김동진)이 문화체육관광부의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에 선정돼 14일부터 ‘오방탐방, 박물관 문화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문화교실은 도내 초등학교 900명을 대상으로 오방탐방(박물관 관람)과 박물관 소장 유물인 ‘내앗 당 무신도’를 활용한 민속 문화교육을 한다. ‘오방색과 제주 문화 체험’, ‘내앗당 무신도 속 부채 만들기’ 등의 창의체험활동도 포함됐다.

참가모집은 오는 9일부터이며 단체참여자(25명 이상)와 가족참여자 가능하다. 단체참여자 ‘길 위의 인문학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고 이동차량이 지원된다.

한편 박물관은 지난달 13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에듀케이터 심층교육프로그램’ 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11월부터 ‘글로벌시대 지역박물관 에듀케이터 전문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2014학년도 1학기 파견 국제 교류수학생 및 복수학위생 선발 안내

2014학년도 1학기 외국대학으로 파견할 교류수학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학생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교류대학별 선발인원, 학비납부 및 대학별 지원 자격(교류수학생)

국가	대 학 명	선발 인원	학비 납부	대학별 지원 자격
일본	고베대학 神戸大学	2	제주대 납부	해양과학대학 2학기 수료한 학생, 평균평점 3.25 이상, JLPT N2
	나카사키대학 長崎大学	2	〃	JLPT N2
	가고시마대학 鹿児島大学	1	〃	JLPT N2, 자연계수업 수강시 TOEIC 680이상
	동경학예대학 東京学芸大学	2	〃	JLPT N2
	홋카이도대학 北海道大学	2	〃	JLPT N2, 해양과학대학 3학년 이상 파견 가능
	메이로대학 目白大学	3	〃	〃
	메이오대학 名桜大学	1	〃	JLPT N2, 2학년이상 파견 가능 수학기간 1년
	소카대학 創価大学	2	〃	JLPT N1, 수학기간 1년, 가족사비 면제
	아마가타대학 山形大学	4	〃	JLPT N2
	사가대학 佐賀大学	3	〃	JLPT N2, 3학년이상 파견 가능
	메이지대학 明治大学	2	〃	JLPT N2
	류큐대학 琉球大学	3	〃	JLPT N2
홍콩	큐슈대학 九州大学	2	〃	JLPT N1, 성적 평점 평균 3.50이상, 2학년이상 파견 가능
	오사카시립대학 大阪市立大学	2	〃	JLPT N2
대만	영남대학 嶺南大学	1	〃	IBT80, 수학기간 6개월, 가족사비 면제
	국립성공대학 國立成功大学	2	〃	HSK 5급 이상, IBT 700이상
	국립중앙대학 國立中央大学	5	〃	〃

국가	대 학 명	선발 인원	학비 납부	대학별 지원 자격
중국	동북대학 东北大学	2	제주대 납부	학부수업 수강시 HSK 5급 이상
	삼협대학 三峡大学	5	〃	〃
	상담대학 湘潭大学	3	〃	HSK 3급(240)이상
	허베이대학 河北大学	5	〃	〃
	천진재경대학 天津财经大学	5	〃	경상대 학생만 지원가능
	동연정보대학 东软信息学院	2	〃	컴퓨터공학과 HSK 4급, 경영학과 HSK 6급 이상
	연변대학 延边大学	2	〃	수학기간 1년, HSK 6급이상 전공 과목 수강 가능
	천진외국어대학 天津外国语学院	5	〃	HSK 3급(240)이상
	허베이이공대학 河北理工大学	5	〃	〃
	호남사범대학 湖南师范大学	3	〃	학부수업 수강시 HSK 5급 이상
	연변과학기술대 延边科技大学	3	〃	수학기간 6개월, 가족사비 면제
	산둥대학 (위해캠퍼스) 山东大学(威海分校)	5	〃	〃
	대련 민족대학 大连民族学院	2	〃	〃
	절강월쇼외국어대학 浙江越秀外国语学院	2	〃	〃
	목단강사범대 牡丹江师范学院	2	〃	〃
	해남대 海南大学	2	〃	학부수업 수강시 HSK 4급 이상
광둥외국어무역대 广东外语外贸大学	장안대 长安大学	2	〃	〃
	광둥외국어무역대 广东外语外贸大学	2	〃	〃

국가	대 학 명	선발 인원	학비 납부	대학별 지원 자격
베트남	호치민국립대 Vietnam National University, Ho Chi Minh City	11	제주대 납부	인문대(1명), 경제, 법학(각 5명) 학부 수업시 IBT 79, IELTS 6.0 이상
	호치민국립대 국제대 Vietnam National University International University, Ho Chi Minh City	2	〃	생명과학, 전자공학, 식품공학, 경영학 과학부 수업시 IBT 79 (각 과목별 19명 이상)
	외국어정보대 Ho Chi Minh City University of Foreign Language and Information Technology	2	〃	IELTS 4.5
	로렌하임 응용과학대학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Rosenheim	4	〃	산업디자인학부 학생만 지원가능
러시아	극동대학 Far Eastern State University	2	〃	〃
	태평양국립대학 Pacific National University	2	〃	러시아어 중급 이상
미국	네브래스카대학 University of Nebraska-Kearney	10	양교 납부	IBT 61, IELTS 5.5
	델라웨어주립대학 Delaware State University	10	양교 납부	수학기간 6개월, 아메리칸 컬처 프로그램, 성적 미소지자 가능
캐나다	리처드스톡턴컬리지 Richard Stockton College	2	제주대 납부	IBT 80, IELTS 6.5, 수학기간 1년
	안젤로주립대 Angelo State University	1	〃	IBT 79, IELTS 6.5
호주	조지브라운컬리지 George Brown College	2	〃	관광경영학만 지원가능 IBT 79(전문학사), IBT 91(학부과정)
	선샤인코스트대 University of the Sunshine Coast	2	〃	교원프로그램 IBT 76(스기 점수 18점 이상) IELTS 6.0(각 과목별 5.5 이상)
몽골	몽골국립대학 National University of Mongolia	3	제주대 납부	Study Abroad 프로그램 IBT 78(스기 점수 18점 이상), IELTS 6.0 (각 과목별 5.5 이상) 수학기간 6개월
	몽골국제대학 Mongolian International University	2	〃	TOEIC 8000이상
칠레	오스트랄대학 Universidad Austral de Chile	4	〃	IBT 80 또는 스페인어 가능자
멕시코	히달고 The Autonomous University of the State of Hidalgo	8	〃	DELE B1 또는 스페인어 중급 이상
계		173		

2. 복수학위생 지원자격

국가	대 학 명	선발 인원	학비 납부	대학별 지원 자격
중국	천진외국어대학	5명 이내	제주대 납부	HSK 5급 이상, 수학기간 2년
	천진재경대학	5명 이내	〃	경상대학생만 지원가능, HSK 5급 이상, 수학기간 2년
일본	메지로대학	1명	〃	JLPT N1 이상, 수학기간 2년

3. 제출서류 (모든 서류 마감일까지 학과제출)

가. 교류수학생 지원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타 대학 수감신청원(소정양식) 1부
다. 지원시점 직전학기 성적까지 나온 성적표 1부
라. 공인영어성적증명서 1부

4. 파견 권역별 장학금 지원

: 해외저대학 파견 교류수학생에게 권역별 파견국가에 따라 파견장학금을 지급함

권역별	대학소재국가	지원금액(천원/학기)		비 고
		1학기	2학기	
동아시아	중국, 일본, 홍콩, 대만, 러시아(극동), 몽골, 베트남	1,000	600	수학대학 학비 면제
	필리핀 (GNE 프로그램)	3,000		학비 양교납부
대양주	미국, 캐나다, 유럽, 인도	2,000	1,200	수학대학 학비 면제
	미국	5,000	4,000	학비 양교납부인 경우

5. 교류수학생 선발

가. 선발공고 : 2013. 9. 3.(화)
나. 신청마감 : 2013. 9. 12.(목)(국제교류본부 공문 및 서류마감일)
다. 대상자 확정 : 2013. 9. 16.(월)
※ 자세한 사항은 제주대학교 홈페이지 제주대소식 참고

6. 문의사항

제주대학교 국제교류본부

☎754-2198, e-mail : intl1@jejunu.ac.kr

교수시론

우리 교육은 왜 ‘일년대계’ 인가



강경희
과학교육과 생물교육전공 교수

“

공교육 내실화를 주장하며

도입된 제도들이 오히려

사교육의 확대를 가져오는

아이러니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

”

돌아르방

대학민주화 역행 언제까지?

‘소통거부’ 총대의원회에 묻는다



김명지 편집국장

총대의원회는 임기 시작부터 제주대신문과의 소통을 거부해왔다. 지난 3월 출범인터뷰부터 학내 사안에 대해 인터뷰를 하고자 접촉했을 때도 묵묵부답이었다. 이번 학생자치기구 중간평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총대의원회는 수차례 섭외전화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불통(不 通)했다. 제주대신문은 결국 학생복지과에 취재협조공문을 전달해줄 것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총대의원회 의장과 전화연락이 닿았다.

하지만 역시나 총대의원회 중간평가 인터뷰는 무산됐다. 결국 제주대신문은 이번 호에 총대의원회의 공약이행 점검을 못 신게 됐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린다. 이번 학생자치기구 중간평가 인터뷰 섭외를 위해 전화통화 당시 총대의원회 의장의 마지막 발언은 가관(可觀)이었다. “앞으로 제주대신문에서 총대의원회에 대한 언급은 자제해주셨으면 하는데요.” 과연 이들이 민주주의 사회에 있으면서 민주 정치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임명받은 대표자는 구성원들에게 공적 활동에 대해 알릴 의무를 지녔다. 현 총대의원회는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인 독자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 이는 대학언론사 존재목적을 부정하고 있는 막말이자 어리석은 언사(言辭)다.

제주대신문을 포함한 신문방송사, 교지 등은 공적(公的) 기구이다. 대학인을 대신해 대의기구인 학생회의 활동에 대해 취재·보도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대학언론의 역할을 ‘제주대학교 신문방송사’ 규정에서 찾기로 한다. 제2조(기능) 1항에 따르면 “신문방송사는 학내의 모든 활동을 보도하고 대학인의 지식과 교양을 증진하며 대학문화의 창달을 도모함으로써 교육목표 달성에 기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총대의원회는 어떤 기구인가. 제주대학교 학생중앙자치기구 홈페이지에 따르면 총대의원회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총대의원회는 학내에 다양하고 혼재된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활동에 반영하고, 각 학생자치단체의 한계성을 보완하여 보다 더 발전적인 입장으로 견제 역할을 수행하는 독자적인 독립기구이다. 총대의원회는 학생회비 승인, 각 학생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심의·의결 및 평가·분석, 회계재정안에 대하여 발의 및 심의·의결하는 등의 권한을 가진 최고 심의·

의결기구이다. 또 총대의원회는 각 학생자치단체가 집결한 사업의 예산지출과 수입부분의 차액에 대하여 심의하고, 특히 지출내역에 대한 영수증의 위조 등을 철저히 심의 및 감사를 함으로써, 학생회비가 학우들을 위하여 올바르게 쓰였는지를 평가한다. 심의 및 감사를 통해 각 학생자치단체의 예산 집행내역을 학우들에게 공개한다. 취재 거부는 ‘자신의 주관적 가치판단에 따라 결정된 양심이나 사상을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받지 아니한다’는 양심의 자유에 따라 가능하다. 고로 당신들은 개인의 입장이아닌 취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학생들을 대표하는 자치기구로서 직무유기했고 ‘불통(不 通)’했다는 오명을 피하기 힘들다. 또한 대학언론의 존재목적을 부정한 막말은 가히 지탄받아 마땅하다. 모든 제주대학교 학생의 권한을 위임 받고 봉사하는 학생자치기구 대표자로서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서 학생들의 모범을 보여주길 촉구한다.

독자기고

SNS, 오·남용 문제 심각



김에린
언론홍보학과 1

고대 그리스의 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요 근래 사회가 나나 할것없이 ‘SNS’라는 악마의 매력에 흠뻑 빠진 것을 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미 몇 천 년 전부터 이 일을 예견하고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곤 한다. 페이스북, 트위터부터 카카오톡 메신저까지. 사람들은 잠시라도 스마트폰을 붙잡고있지 않으면 몹시 불안해하며, 자신이 올린 글에 알림을 확인하려고 몇 분, 몇 초 단위로 알림을 확인하곤 한다. 나 역시도 그랬다. 친구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나 남자친구와 손을 잡고 간 여행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사진을 찍은 뒤 페이스북에 업로드를 하는 일이었니까. 그러곤 누가 내 글에 ‘좋아요’를 눌러주나 일일이 확인하고 댓글을 다는 애들에게 하나하나 답편을 해주다보면 내가 SNS를 사용하려고 밥을 먹는지, 밥을 먹

으니까 SNS를 하는건지 혼동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토록 사람들을 꽉 붙잡는 SNS의 매력은 점차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 최근 한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대학생중 40%가 우울증 증상을 겪어본 적이 있다고 한다. 이들은 본인의 삶과 타인의 행보만 모습을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느끼거나, 관심을 받고 싶어 마음에도 없는 자극적인 글을 하루에 몇 번씩 올리기도 한다. 이런 증상이 심해지면 자살소동을 벌이거나 거짓된 삶에 본인이 지쳐 우울증으로 빠지는 것이다. SNS를 통해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개인적인 문제를 겪는다면 ‘냄비근성’과 ‘미녀사냥’은 SNS속 사회적인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어느날 페이스북을 통해 올라온 한 장의 사진. 끔찍하게 반토막인 한 개의 시체 사진과 함께 자신 이웃의 잔혹한 행위를 고발하는 짧막한 글에 네티즌들은 후끈 달아올랐다. 동물사랑 단체 번호가 아저니, 당장 감옥에 가줘야 한다느니 하는 글은 순식간에 수천, 수만개의 ‘좋아요’와 함께 날리날리 퍼졌다. 하지만 다음날 개를 죽였다는 장본인의 해명 글이 올라오고 죽은 개는 위험한 맹견

임이 알려진다. 이 글을 통해 ‘가엾게 죽어간 불쌍한 개’는 한순간에 ‘죽어도 마땅한 위험한 개’로 변하고 개 주인은 몰상식한 사람이 되어 여러 사람들의 키보드에 오르내린다. 위 글은 실제로 페이스북 내에서 있었던 일이며 우리 사회의 단적인 면을 가장 잘 드러내는 사건이다. 이러한 일은 SNS상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며 최근에 네티즌들을 후끈 달아오르게 한 ‘카페메네 빙수사건’ 또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SNS가 발전하면서 문제점도 같이 끊어만 가는데, 해결 방법은 없는 것일까? 이 문제의 열쇠는 결국 사용자 귀에 있다. SNS의 엄청난 정보전달속도에 휩쓸리지 말고 자신만의 생각을 굳건히 갖춰야 하며, 타인의 삶에 신경 쓰기보다는 개인의 삶을 먼저 가꿔야 할 것이다. “트위터는 인생의 낭비”, “당신은 지금 140바이트짜리 스캔메시지를 전 세계에 뿌린 것 뿐이다”는 말이 있듯이, 무분별한 SNS 사용은 결국 해가 될 뿐이다. 키보드를 누를 때는 간헐하게 두드릴 수 있지만 거기에 따르는 책임은 무엇보다도 무거움을 항상 생각하고 올바른 SNS 이용자가 되도록 노력하자.



부대영
JEBS 제작진행부장

2009년 제주대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 설렘을 가지고 다양한 경험과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았다. 그러던 도중 신문방송사의 교육방송을 알게 됐고 입국을 하게 됐다. 처음 교육방송에 들어간 나는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차츰 이곳에서 다양한 교육을 받고 방송을 하면서 방송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었다. 방송인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교육방송에는 오픈스튜디오, JEBS 방송제, JEBS 영상제, 하계이동방송 등 다양한 행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행사가 하나 있었다. 그것은 바로 매년 5월에 열렸던 방송국의 가장 큰 행사인 ‘JEBS 영상제’였다. 교육방송 국원들의 실험정신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방송역량을 펼치는 동시에 건전한 대학방송 문화를 정착시켜 제주대학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개최된 ‘JEBS 영상제’.

중·고등부와 대학생부, 일반부로 다양

등문칼럼

현재의 결핍은 자신을 성장시키는 자양분



조영순
경영학과 92학번
자유기고가

올 여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은 폭염속 여름에 ‘괴연’ 쓸쓸한 가을바람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있을까?”하고 걱정을 했는데 시나브로 가을바람은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고집스런 여름은 가을에게 자리를 내주고 이미 하늘은 청명함을 뽐내며 높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의 말처럼 자연은 늘 겸손합니다. 잊그제 ‘등문칼럼’에 글을 기고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이제 가을 불혹을 넘긴 나이에 뭐 한 게 있다고 등문칼럼에 글이러니 겁이 ‘덜컹’ 났습니다. 평소 블로그기자로 왕성히 활동하고 계시서 후배들에게 조언 좀 해주십사하는 너무나도 겸손한 태도에 차마 거절을 못하고 자판을 두드려 봅니다.

지난 7월, 제주도립미술관에서 전시한 ‘세계미술거장전-나의 사람, 당신의 피카소전’에서 루치오폰타나(Lucio Fontana)의 공간개념이라는 작품을 접했습니다. 1960년에 그린 작품으로 내용을 보면 ‘하얀색 캔버스에 칼자국 세 개’ 현재 30년이 지난 1999년의 이 그림의 가치는 10억! 칼자국 한 개에 3억3천3백3십...!(부디, 이 시점에서 예술작품을 돈으로 환산하고 있는 제 무식함을 크게 나무라지 말아주시길...). 타인에게 기존의 캔버스는 끝이 보이는 누군가가 재현해야 하는 도구였는데 루치오폰타나(Lucio Fontana)에게 캔버스는 끝이 아니라 그 이상의 세계가 있는 제 4차원의 열망하는 공간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어린아이들이 그어놓은 선 세계, 보통 어른들의 잣대로 생각하면 정말 ‘무의미하다’라고 느낄 수 있지요. 당시 ‘무의미한’ 그림이었지만 이후 여러 가지 ‘의미’를 생산하고 10억의 가치로 표현되는 대중성을 얻기까지 무려 30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세계미술의 거장의 공통점은 남이 하지 않는 시도를 맨 처음 했던 도전이라고 합니다.

지난 2009년 우연한 기회에 농촌진흥청 주부블로그 기자단으로 활동하게 되고 기후온난화가 한국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열대채소, 도시농업에 관심을 갖게 되고 기사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후 제가 쓴 기사가 포털사이트에 베스트기사에 오르고 순간검색어 5위에도 차지하게 되지요. 활동의 평가는 그해 연말 농촌진흥청 전국 최우수블로그기자상을 수상하면서 결실을 맺게 됩니다. 블로그기자로서 취재를 다니면서 취재후기가 자연스럽게 모니터 상에 나오게 되고 이는 정책제안으로 이어지게 되지요. 그러면서 작년 2012년에는 제가 제안했던 내용이 우수제안으로 뽑혀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상 은상, 동상을 상받기, 하반기 2번이나 수상하고 연말에는 농촌진흥청장상,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게 되는 영광도 안

게 됩니다. 현재는 농촌진흥청블로그, 제주특별자치도 도청뉴스, 제주시청에서 발간하는 ‘열린 제주시’, 인터넷신문 브레이크뉴스 제주판등 다양한 매체에 제 글을 송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뭐 하시는 분이예요?’ ‘자유기고 블로그잡니다’라고 하면 그에 맞는 부연설명을 요구합니다. 특별히 정해진 매체는 없지만 그 매체의 특성에 맞게 자유롭게 블로그 형식으로 글을 기고하는 그야말로 오리는 곳 없지만 가야 할 곳은 많은 ‘자유기고 블로그기자’라고 답하지요. 저는 뜻을 세워야 하는 이립(而立)의 나이인 30세가 될 때까지 그 뜻조차 못 세우고 있다가 어떤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불혹(不惑)의 나이인 40세에 접어들면서 온갖 유혹에 흔들리면서도 뜻을 세우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는 지금 루치오폰타나(Lucio Fontana)가 공간개념을 만들었던 하얀색 캔퍼스를 이제서야 막 준비한 사람일뿐이지요. 시작의 시점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무엇을 시작하고 어떻게 이뤄내는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제 일에 끊임없이 동기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SNS(블로그와 페이스북)를 통해 한국의 1차 산업인 한국농업과 제주농업, 그리고 제주 의 소소한 이야기를 그려내는 1인 미디어로 우뚝서기 위해 시시때때로 닦쳐오는 성장통과 싸우고 있는 과정에 있지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 역시 졸업과 취업을 앞둔 후배님들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저에게 주어진 직업은 육아를 주전공으로 하는 ‘전업주부’였지요. 그리고 꼬리표처럼 따라오는 것은 ‘경력단절’이었습니다. 학창시절의 꿈은 ‘미스코리아’, 어른이 되어서의 꿈은 현명함 어머니 양처럼 순한 아내인 ‘현모양처’라며 우스개 소리를 할 정도로 낙천적인 저였지만 가정생활이라는 편안한 울타리 안에서 아이러니하게 더 불안해 지는 것은 아마도 아이들이 성장한 후에 다시 사회로 나가서 일을 해야 하는 ‘경력단절’이 주는 현시대의 전업주부들의 불안한 심리와도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게되기까지 큰 힘이 되었던 것은 ‘위기’와 ‘결핍’이었습니다. 무엇이든 넘치게 갖고 있으면 사람이 자만하고 게으르게 됩니다. 결핍을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자양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결핍 속에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 각각 사연마다 다른 결핍과 위기에 처하고 있는 후배님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는 결코 후배님들을 좌절시키기 위한 악조건이 아닙니다. 이를 자양분으로 활용하고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루치오의 판타나의 공간개념과 같은 칼자국을 그어 낼 캔퍼스를 반드시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장은 아무도 하지 않았던 것을 처음 시도했는데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면서 여러분의 의미 있는 칼자국의 행보를 응원합니다.

제11회 제주대학교 영상제에 초대합니다

한 연영층이 참여할 수 있었던 영상제는 제7회 영상제부터 전국으로 모집단위를 넓히면서 전국 규모의 영상 축제로 올라갈 수 있었다. JEBS 영상제는 2003년 제1회 CEBS 영상제를 시작으로 올해 제11회 제주대학교 영상제가 진행된다. 제7회 ‘꿈’이라는 주제를 시작으로 제8회, 제9회, 제10회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어 전국에서 공모된 영상들을 상영하면서 관객들과 소통을 나눴다. 올해부터는 ‘JEBS 영상제’가 ‘제주대학교 영상제’로 처음 바뀌었다. 이는 JEBS 영상제가 단순히 교육방송의 행사가 아닌 제주대학교의 대표적인 영상제로 발돋움 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꿈과 사랑을 주제로 개최됐던 영상제가 제주대학교 영상제로 개최되면 이번 영상제 주제를 ‘처음’으로 선정했다. ‘처음’이라 하면 무엇이 가장 생각이 날까? 첫 출산, 첫 입학, 첫 사랑 등 이렇게 처음으로 시작하는 말들을 찾아본다면 ‘처음’이라는 단어가 가진 힘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누군가에게는 설렘을 가져다주고, 어떤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처음’이 아

닐까? 이렇듯 ‘JEBS 영상제’에서 처음으로 바뀌는 ‘제주대학교 영상제’는 우리 JEBS 국원들에게는 설렘이자 두려움이 있다. 제주대학교의 대표적 영상제를 개최한다는 설렘과 동시에 더 나은 영상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두려움. 그래서 제주대학교 영상제를 더욱 발전시키고 탄탄하게 준비하기 위해 매년 5월에 열렸던 영상제 개최 시기를 9월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3월부터 9월까지 영상제를 위해 열심히 준비한 실무진과 정국원, 수습국원의 꿈과 열정이 드디어 오는 5일 오후 5시 30분 제주대학교 아래마루홀에서 그 결실을 맺게 된다. 모든 국원이 맡은 바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이제 그 시작을 앞둔 상태에서 기습 베팅한 ‘처음’을 기다리고 있다. 신문방송사 교육방송이 1968년 ‘처음’ 개국한 이래로 2013년 ‘처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주대학교 영상제를 개최하는 가운데 40여년의 역사가 ‘처음’을 가지고 만나게 된다. 그 40여년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에서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을 잊지 않고 항상 초심을 지키는 교육방송이 되고자 다짐한다.

» 중앙자치기구 중간평가

〈제주대신문〉은 지난호(8월 28일자)에 이어 학생 중앙자치기구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했다. 총여학생회, 동아리연합회 등 자치기구 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금까지의 공약 이행 정도를 살펴봤다. 임기의 절반을 넘긴 상황에서, 이들 중앙자치기구의 상반기 실적과 앞으로의 남은 과제를 짚어본다.

“여성축제·성폭력 근절 등에 최선”

<2> ‘청춘길고’ 총여학생회 상반기 평가

-임기가 중반을 넘어섰다.
“한 학기동안 총여학생회를 하면서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이전에 총여학생회 활동을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총여학생회의 존재 의미를 생각하고 꽤 긴 시간동안 그 부분에 대해 고민해왔다. 다시 임기의 절반을 돌아보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활동에 임할 계획이다. 다만 벌써 중반기를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아쉽다.
1학기에는 출범식, 체육대회를 하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2학기엔 축제 준비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앞으로도 학우들의 복지와 권익 신장을 위해 남은 공약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
-최근에 총여학생회가 하고 있는 일은? 또 잘했던 일과 아쉬웠던 일은 무엇인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은 11일부터 열리는 총여학생회 축제이다. 축제를 진행하면서 위안부 팔찌, 그린캠퍼스, 정책공모전 등 준비했던 많은 공약들을 상당수 이행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알찬 축제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홍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총여학생회를 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학우들로부터 성희롱 관련 상담을 요청받은 적이 있었으나 해결하는 데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한 때가 많았다는 점이다. 그러던 와중에 K교 교수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성추행 사건은 학내 여성문제에 있어 방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을 빌어 학생들에게 보다 학생회의 책임 있는 활동



총여학생회 회장 박지혜(오른쪽), 부회장 고수연

을 보여줘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다. 현재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해 대표자로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해당 교수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서명 운동 등을 벌이고 있다.”
-1학기에 역점을 뒀던 사업은.
“학생들에게 총여학생회를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저학년 학생중에는 총여학생회를 모르는 이들이 부지기수이기 때문이다. SNS가 많이 활용되는 시대인 만큼 총여학생회가 하는 일에 대해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렸다. 또 반대로 SNS를 통해 학생들의 목소리 또한 많이 들을 수 있었다. 총여학생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큰 힘이 됐다.
1학기에는 학생 복지차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힘을 쏟았다. 그간 이뤄지지 않았던 수면실 수리 등을 실시했다. 그 외에도 에티켓 벨 설치도 학교

당국과 협의하면서 추진되고 있다. 다음 주 중으로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2학기에 할 일은.
“총여학생회 축제, 김장행사 등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또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를 태풍에 대비해 수재민 돕기를 준비하고 있다.”
-남학우와 여학우의 차이를 메운다는 말이 추상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다.
“어떤 사업을 하든 ‘여학생을 위한, 혹은 남학생을 위한 일’이라고 말한 적이 없었다. 남녀 모두에게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사업, 행사를 열고자 노력했다. 여학생들을 위한 활동이었을지라도 남학생들에게 ‘여학생들이 불편해했던 점을 고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도 이 점에 있어 많이 힘쓰겠다.”
-임기 중반을 넘기며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일 년이 길다 생각했는데 벌써 한 학기라는 시간이 지나가버렸다. 그동안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다. 학생들이 원하는 점을 모두 듣고 실행하기에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이번 2학기에도 학생들을 위해 준비한 사업, 행사 등이 많이 마련돼 있다. 하는 일에 소홀해지지 않고 최선을 다해 남은 임기를 마치도록 하겠다.” 김명지 기자

2013년도 상반기 '청춘길고' 총여학생회 공약 이행표	
01. 자경경부암 예방주사	○
02. 시크릿 화장실	○
03. 후문 순찰대	○
04. 독도 탐방	△
05. 태풍 수재민 돕기	☆
06. 위안부 팔찌 만들기	○
07. 김치 나눔	☆
08. 그린캠퍼스	○
09. 정책 공모전 실시	○
10. 여학우의 날 실시	☆
11. 취업 컨설팅	○
12. 택배 수령	○
○=이행 완료 ☆=이행 예정 △=일부 이행 ×=미이행	

“동아리 활성화 지원사업에 힘쓸 것”

<3> ‘하나·하나’ 동아리연합회 상반기 평가

-신입생들에게 동아리를 홍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다.
“동아리 홍보는 제일 역점을 두고 진행한 공약이다. 동아리 활동을 위해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신입생 유치를 위해 포스터, 현수막, 천막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다. 이런 노력으로 지난해에 비해 500명 정도 동아리에 더 가입했다.”
-타 대학과의 교류 연수 추진은.
“전북대와의 교류연수를 통해 그곳의 동아리 문화를 배우려고 했다. 전북대에서도 승낙을 했었다. 그러나 참여 인원이 부족해 교류연수가 취소됐다. 그래서 대체 공약으로 현재 동아리 전체MT를 기획 중이다. 약 200~300명의 학생들을 참여해 동아리인들이 서로 친해질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동아리 지원금, 분과별 행사, 지원 및 홍보는 이뤄졌다.
“1학기 동안 4개 동아리에 6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2학기에도 보다 많은 동아리에게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 이와 함께 지난해까지 진행하던 대동풍이를 없애고 분과별 행사를 추진하도록 했다. 그러나 동아리마다 스케줄 조절이 쉽지 않고 장소 섭외에도 어려움이 있어 행사 기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2학기 중에는 분과별로 공연이나 행사를 기획 및 실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분과별 회의 활성화 및 체계 확립을 하겠다고 했다.
“지금까지는 동아리연합회 회의가 제대로 지켜지



동아리연합회 회장 정영훈(왼쪽), 부회장 김범훈

지 않아 체계적인 동아리 관리가 어려웠다. 올해부터는 회칙을 일부 개정하고 그에 따라서 동아리연합회를 운영했다. 또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동아리들을 묶어주는 분과 단위에서 동아리들을 이끌어 가게끔 만들었다. 이를 위해 작년까지 유명무실했던 분과장의 힘을 강화시켰으며, 지난해 거의 이뤄지지 않았던 분과별 회의를 매주 진행시켰다.”
-그 외 공약들의 이행 사항은.
“홍보 캘린더의 경우 매달 제작해 학생회관에 달고 있다. 9월달 캘린더도 곧 설치할 것이다. 홍보 캘린더를 통해 그 달의 공연일정이나 동아리인이 알아야 할 정보를 기재했다. 뿐만 아니라 일반 학우에게도 동아리와 관련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다.
신입생 연합 MT는 1학기 때 60명 가량이 참여해 진행했었다. 또 핸드폰 충전기 배치는 조만간 충전기

배치를 예정하고 있다. 2주 1회 단체 영화 관람 시행은 참여자가 너무 없어서 한 달에 한번으로 바꿨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낮은 참여율로 시행을 중단했다.”
-앞으로의 계획은.
“대부분의 공약이 이행됐기 때문에 대체 공약에 힘을 예정이다. 또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또 내년 동아리연합회 인수인계도 12월 한달에 걸쳐 장기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이를 통해 내년 동아리연합회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마지막 한마디.
“동아리는 자기의 취미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과 함께 취미를 즐기는 데 의미가 있다. 자신의 능력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활용해 동아리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또한 동아리연합회가 동아리간의 교류 활성화, MT 등을 통해 화목한 동아리 활동이 되도록 만들겠다.” 김동현 기자

제시한 공약 대부분 이행

동아리 전체MT 준비

2013년도 상반기 '하나·하나' 동아리연합회 공약 이행표	
01. 신입생 홍보 강화	○
02. 동아리 지원금	○
03. 교류 연수 추진	×
04. 홍보 캘린더 제작	○
05. 신입생 연합 MT	○
06. 시험기간 간식 배부	○
07. 핸드폰 충전기 배치	☆
08. 분과별 행사 추진, 지원 및 홍보	○
09. 분과별 회의 활성화 및 체계 확립	○
10. 2주 1회 단체 영화 관람 시행	△
○=이행 완료 ☆=이행 예정 △=일부 이행 ×=미이행	

» 문화단신

테마별 세계교육기행 9~12일 접수

‘제주대 테마별 세계교육기행’에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지원서를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접수받는다.
학생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이번 기행은 다양한 분야에 대한 체험 학습을 통해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고, 국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취지가 있다.
오는 12월 15일에서 내년 1월 20일까지 진행되는 세계교육 기행은 총 16개팀을 선발하며, 아시아 권역 10개팀, 오세아니아 권역 2개팀, 유럽·미주권역 4개팀으로 나눠 선정한다. 13일에서 24일까지 서류심사, 30일 면접 심사를 거쳐 10월 4일 최종 발표된다.

탐라문화연구소 학술세미나 6일 열려

탐라문화연구소(소장 김석준)는 오는 6일 오후 1시 30분 국제교류관에서 ‘제주학의 미래와 대학 연구소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동진 사학과 교수가 ‘탐라문화연구소의 미래와 지역학으로서 제주학’, 강봉룡 목포대 도서관학연구소장이 ‘지역학 연구와 대학연구소의 역할’, 박경훈 제주전통문화연구소장이 ‘지역학으로서 제주학을 위한 탐라문화연구소와 지역 연구기관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한다.
또한 김동윤 국어국문학과 교수의 사회로 강문규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장, 강인창 KBS제주방송총국 편성부장, 김동철 부산대 사학과 교수, 문순덕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장, 허남준 국어국문학과 교수의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아라여성축제 11일 아라뮤즈홀서

‘2013년도 아라 여성축제’가 오는 1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아라뮤즈홀 및 주변 마당에서 열린다.
총여학생회에서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제주대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정책 공모전과 각종 강연 및 공연이 마련되며, 그 외에 미니 박물관, 기부성 카페 및 다양한 부스 행사도 진행된다.

성희롱·성매매 근절 캠페인 11일

‘성희롱·성매매 없는 행복한 캠퍼스 만들기 캠페인’이 오는 11일 아라뮤즈홀 마당에서 학생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성희롱과 성폭력을 바로 알고 성에 대한 지식을 함양하며, 데이트 성폭력의 개념도 이해한다.

현철·현철증 기증행사 아라뮤즈홀서

‘사랑의 현철·현철증 기증 행사’가 오는 1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아라뮤즈홀 광장에서 열린다. 본 행사는 현철 및 현철증 기부 문화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기증된 현철증은 대학직접자활액원으로 보내진다. 또한 봉사시간 8시간이 인정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JDC대학생아카데미

머뭇거리지 마라, 청춘아



문의 064) 754 - 2306

*제주대 취업전략본부

VOD www.jejusori.net

페이스북 [fb.com/JDCAcademy](https://www.facebook.com/JDCAcademy)

블로그 blog.naver.com/JDCAcademy



09.02 김한욱 JDC 이사장
제주도개발과 환경보존,
우리의 자세



09.03 오중철 소동테이너
OnlyOne한 꿈을 꾀라



09.10 김광연 공모전의 신
불광불글, 미쳐야 미친다



09.17 유지성 오지레이저
내가 주인이 되는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09.24 김영하 작가

꿈을 이룬 내가, 오늘을 사는 너에게...



10.01 강태선 블랙야크 회장



10.22 최중학 서울대 교수
세계금융위기와
그 이후의 세계



10.29 김봉정 컨설턴트
실전 프레젠테이션 디자인



11.05 노광철 집치독 대표



11.12 손보미 작가
청춘 멘토링,
나만의 기록 만들기